

종립학교를 가다

(5) 동대사대부중·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가 변하고 있다. 높은 담장을 헐어 투시형 낮은 담장으로 바꾸고 교내에 나무 4천 3백 그루도 심었다. 그늘과 휴식공간을 마련,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열린교육, 열린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학교의 외형적 변화 못지않게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동창회,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가 합심하여 전 교실과 특별실 6개 학급에 에어콘을 설치했다. 가히 최고의 시설이라 할만하다.

첨단시설 자랑... 국제 교류 활발

이같은 교육환경 속에 동대부중·고는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를 구현하자'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오늘도 인재발사에 매진하고 있다.

교내에서는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선정의 시간을 알리는 죽비소리가 울려 퍼진다. 학생들은 모두 제자리에 앉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범종소리와 함께 5분간 명상에 든다. 모두들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한다. 동대부중·고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하는 선정의 시간. 학생들에게 가치성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등 인성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동대부고는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독서 습관과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매일 독후감 쓰기 우수자를 시상하고, 시·삽화대회 등 독서 장려 행사를 개최해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있다.

동대부고는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교수학습법을 중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상담실 운영을 들 수 있다. 진로, 학업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풀고 있다. 또한 학교 도서관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 교내·외 종합정보 검색 및 자료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자기주도

적 학습의 원천이 되고 있다.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많은 대외활동도 펼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제 교류 활동. 고등학교에서는 보기 드물게 지난해 학생 20명이 캐나다 자매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했고, 일본 자매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의 문화를 소개했다.

공부하고 싶은 교육환경, 종립학교만의 독특한 교육프로그램, 이같은 노력으로 동대부

아침 5분간 선정삼매 불교 교양대학 운영

전교실 에어컨 설치 교내 나무 4천그루 심어

고는 지난해 서울대에 7명이 진학하는 등 남북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동대부중은 종립학교의 위상을 제대로 갖춘 학교다. 중·고등학교의 학교편제는 교무실과 행정실 2실 체제. 종립학교들은 그 특성상 교학, 관련부서를 두게 되어 있는데 보통 교무실내에 교학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대부중은 교무실과 동등한 교학실을 따로 두어 3실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만큼 교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



동대사대부중·고는 이사장 오복원 스님의 지원아래 최신 시설을 갖추고 불교이념을 바탕으로 올바른 인재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사진은 학교내 학생들의 휴식 공간전경.

체제상 교학업무의 위상정립은 학생들에게 불교를 통해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동대부중 1학년 학생 전원이 미술시간을 활용해 1인당 20자씩의 금강경구를 동판에 새겨 동판 금강경을 만들어 법당에 안치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합동으로 석굴암 본존불을 스테인드글라스로 제작, 공동체 의식 함양과 더불어 사는 삶을 느끼게 하고 있다.

더불어 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제 주체들의 신생활도 활성화되고 있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꽃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는 것만 보아도 동대부중의 신생활이 얼마나 대단하지 금방 알 수 있다.

동대부중·고는 1947년 재단법인 조선제신사업협회가 흥국공업 초급중학교로 개교한 이래 1966년 동국학원이 인수해 70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현재 오복원 이사장의 지원 아래 고등학교 1781명, 중학교 846명의 청보리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김두석 기자 doob@buddhapia.com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⑦

근육 스트레칭

1.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손은 위로 올려 놓는다.
2. 천천히 양무릎을 한쪽 방향으로 '이' 소리를 내면서 내린다. 이때 고개는 무릎이 향한 반대방향으로 돌린다.
3.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무



천천히 부드럽게 단전에 모았던 기(氣)를 무릎에 옮겨 펼치라



릎을 단전으로 잡아당겨 바로 세운다.

4. '뽀'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반대방향으로 반복하고, '꼬' 소리를 내면서 맨 처음 상태로 돌아온다.



겨드랑이, 두다리, 옆구리, 엉덩이를 천천히 부드럽게 늘리는 근육스트레칭이다. 주의할 점은 스트레칭 동작의 시작

자세에서 단전에 모았던 기(氣)를 무릎에 옮겨놓고 한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시도한다.

지역불교 문화기행

더위 식힐 동해 3寺 순례

7월: 건봉사·낙산사·등명낙가사·정동진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의 길목에서 시원한 해안가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가는 삼사순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웅전에 서 내려다 보이는 일출이 장관인 등명낙가사에서는 인간문화재 유근형씨가 5년에 걸쳐 만든 오백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유명한 정동진역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세운 최초의 화엄도량 낙산사에서는 동양 최대의 해수관음상(사진)과 의상대사가 관음을 친견한 기도처인 흥련암을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길에는 염불만일회의 발상지이자 부처님 진신처야 사리가 봉안돼 있는 금강산 건봉사도 찾아갑시다.

- ◇출 발: 7월21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 ◇회 비: 5만5천원(조식·중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주)한화여행

행동으로 가르치는 '열성파'

동대사대부고 김상숙 교장



동대사대부중 주정식 교장



동대부중·고와 30년을 함께 동고동락 해 온 고등학교 김상숙 교장(사진 위)은 일명 '쓰레기 줍는 교장'으로 통한다. 실천하며 가르치자는 교육철학으로 학교 운동장이나 복도에 떨어진 휴지를 직접 줍고 다니기 때문이다.

"몸 즉 행동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지 말로써만 가르치면 항상 시비가 일어납니다. 인성이나 예절도 내가 먼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동대사대부중 주정식 교장(사진 아래)은 학생들에게 항상 'ABCDE' 이론을 교육한다. 즉 A는 'Agreement(타인과 일치)', B는 'Beauty(덕의 아름다움)', C는 'Character(개성)', D는 'Duty(의무)', 마지막 E는 'Education(자기주도 학습)'을 말한다.

"ABCDE 이론만 잘 지키면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주 교장은 교학실을 설치하는 등 종립학교로의 위상 정립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불교의 자비와 수행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사회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시민의 자질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전국대회 석권... 소모임 활발

동아리 탐방

축구부·파라미타

동대부고에는 많은 동아리들이 있다. 그중 축구부는 전국 99개 고등학교 축구팀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유명하다. 지난해 전국 대회인 금석배를 재패했고, 최문식, 이상운 등 다수 국가대표를 배출하기도 했다. 특히 운동선수는 공부부를 못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동대부고 30여명의 축구부원들은 오전 수업에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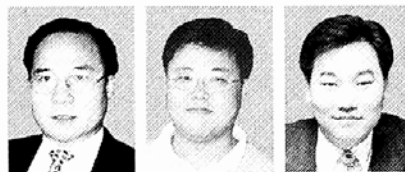
해 기초학력을 키워 전원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파라미타 불교학생회도 동대부고의 최고 동아리다. 회원만 800명이 넘는 파라미타 불교학생회는 소모임 활동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들은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점심법회를 보는 등 왕성한 신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반은 다음카페 동대부고 불교학생회(cafe.daum.net/ddbk)를 운영하고 있고, 자체 홍보 시디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있다. 김두석 기자



교법사실에서 박영동·권진영·우인보 법사

불상 만들고 사경하며 포교



박영동 법사 권진영 법사 우인보 법사

동대부중 고에는 교법사가 세 명이 있다. 고등학교의 박영동, 권진영법사와 중학교의 우인보 법사다. 이들은 또한 전국교법사단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전국교법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영동 법사가 말했처럼 고등학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 권진영 법사는 적극적인 행동대장이다. 권 법사는 고등학교내에 3백명의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를 조직해 문화재 애호반, 농구반, 환경반, 연극반, 사진반, 인터넷반 등 6개의 소모임을 만들어 활성화시켰다. 또 박영동 법사는 학생들의 신생활 상담외에 진로와 진학 상담까지 도와주고 있다.

우인보 법사는 불상만들기, 사경 공모전 등을 교내에서 매년 개최하며 학생들의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교내에서 불교 행사를 하면 학생들에게 호응도가 높다"며 "부처님의 교리를 알기 쉽게 접하게 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